



김인순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편의증진팀장
by Kim, In-soon

약력

- 건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
- 대한재활공학회 운영이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장애인편의시설분야 심의위원, 보건복지부 편의증진심의회 위원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공간에 대해

The Space for the Cultural Activities for the Disable who should not be Discriminated

지난해 12월 부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부산지역 '장애인의 문화활동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패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받아 참석했다. 이 세미나는 2007년 부산지역 장애인문화편의시설 조사 결과 분석에 대한 토론과 아울러 향후 장애인문화편의시설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세미나는 관련자 및 패널 그리고 몇 명의 장애인, 부산 모 방송국의 기자 등만이 참석한 매우 조촐한 세미나였다.

사실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이하 장차법 이라함)이 시행되는 원년이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관련된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들만의 얘기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관련이 없는 한 참석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특히 건축을 하는 사람이 그런 세미나에 참석한다면 그 이유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에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참석했다. 2007년 부산지역 장애인문화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두 개의 시설에 편의시설이 잘 된 시설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시상이 있었고 이 시상에 참석한 부산 벅스코와 CGV관계자가 바로 그들이었다.

우리사회의 경제적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그동안 경제적 활동에 집중해온 사회구성원들은 보다 여유로운 문화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화적 활동의 관심은 주 5일제 근무라는 사회적 경제활동의 축소 등에 의해서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같은 사회 여러 환경변화에 따른 문화활동의 욕구 증대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작은 의미로는 일하지 않고 쉬는 주말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문화활동을 한다고 하면 보다 큰 의미로는 주말에 스키를 타러가거나 등산을 가는 등의 문화활동을 통해 일로 쌓인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라는 요인은 문화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해받게 된다. 그 이유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사회 전체의 물리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화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휠체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은 영화 한편을 보러가기 위해 우선 어떤 영화관에서 '내가 원하는 영화를 하는가'에 신경을 써야하기 보다는 어느 영화관이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관람석이 있고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가'에 먼저 신경

focus

향후 문화시설을 계획하는 건축인들은
문화를 느끼는 수준과 방식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누구도 문화에 접근할 권리조차 박탈당하지 않을,
그런 문화 관련 건축물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모두가 차별없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아마 어떤 세계적 건축사가 만들어낸 유명한 건축물보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본다.

을 써야 한다. 어쩌다 상영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도 되는 영화를 보러가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국과 같이 화장실을 자주 가야할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가려고 인터넷으로 좌석을 예약하려면 휠체어사용자석과 일반석이 함께 설치된 좌석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 일반적으로 옮겨 앉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만 원하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영화 한편을 보기위해 이런 많은 상황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사회 문화시설의 현 수준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부산 벅스코와 CGV관계자는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장애인의 자그마한 문화활동도 시설상의 불편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건축이 세상에서 멋진 건축물로 우뚝 서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런 멋진 건축물이 정말 누구에게나 편한 건축물로서 이용자들이 다가가는 것까지 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잘 볼 수 없는 사람들도 그리고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문화를 동등하게 누리하고자 한다면 모두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일반인들은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영화를 보고 야구경기를 즐길 수 있는가를 말하고 청각장애인이 어떻게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자신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 볼 수 없는 사람들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을 한번만 해 본다면 답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다.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탐사를 떠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장애인들의 동등한 문화활동 요구에 대해서만은 16세기를 살고 있는 듯한 말을 하면서 관련 시설물을 설계한다면 이는 미래를 지향하는 건축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향후 문화시설을 계획하는 건축인들은 문화를 느끼는 수준과 방식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누구도 문화에 접근할 권리조차 박탈당하지 않을, 그런 문화 관련 건축물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모두가 차별없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아마 어떤 세계적 건축사가 만들어낸 유명한 건축물보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본다. ■